

전북 65세이상 17.7%... 전국 2번째

'201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부문' 결과 발표... 노령화 지수 131.6%로 2005년 74.7%보다 56.9%p 폭증

도내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전북의 노령화 지수가 10년 만에 50% 이상 늘어나는 등 고령인구 비중이 전국 평균에 비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부문'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지역별 고령인구 추이를 보면 전북이 17.9%로 전남의 21.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전국 기준 전북의 고령화율은 13.2%

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고령화(20% 이상)로 진입한 전남에 이어 전북이 '2번'이라는 순번표를 받았다. 이어 경북(17.8%)과 강원(16.9%), 충남(16.3%) 순으로 고령화율이 높았다. 현재 도내 인구는 183만4,114명으로 전체 인구(5,106만9,375명)의 3.6%를 차지했다. 이는 10년 전보다 5만 6,000여명 감소했지만 5년 전(176만6,044명)에 비해 6만18,000여명 늘면서 180만 명대를 그나마 유지했다.

노령화 지수는 131.6%로 2005년 74.7%보다 56.9%포인트 폭증했다. 반면 15~64세의 일할 나이 연령은 123만4,821명으로 2005년 122만542명보다 1만4,279명 늘었는데 그쳤다. 부양할 인구는 많아지고 부양을 위해 일할 인구는 줄어드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경제활동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비 경제활동 인구는 늘어나는 반비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도내 가구는 72만6,572가구로 2010년

(65만4,000가구)보다 3만4,000가구 늘었다. 이는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1인 가구(21만3,750가구) 비율은 29.4%로 2005년 22.1%에서 7.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은 68만7,103호로 2010년 64만 2,000호보다 4만5,100호 증가했다. 한편, 인구주택총조사는 1960년 이후 5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고민형 기자

민물고기시험장, 남원·순창에 다슬기 치패 70만 마리 방류

전북도민물고기시험장이 다슬기 70만 마리를 방류한다. 민물고기시험장은 8일 남원 요전과 순창 추령천에 생태계 변화 등으로 사라져 가는 다슬기의 생태계 복원과 농·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자체 생산한 다슬기를 방류할 예정이다. 남원 요전에는 45만5000마리, 순창 추령천에는 25만5000마리를 각각 방류하게 된다. 이번에 방류하는 다슬기 치패는 섬진강 수계에서 성숙한 자연산 어미를 구입, 자연출산을 유도해 약 80일간의 사육관리를 통해 0.7cm정도의 크기로 성장시킨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다슬기는 청정지역의 대표적 관종으로 알려질 반딧불이 애벌레의 먹이로 다슬기 자원조성은 물론, 자연생태계 회복과 하천정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추석 맞아 35사단 장병들과 점심식사. 송하진 도지사는 7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임실 35사단을 방문해 김경수 사단장과 함께 장병들과 점심식사를 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현직 군수, 여비서 성추행 의혹 사정당국 조사 중

전북지역 한 현직 군수가 해외출장 중 여비서를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7일 해당 지자체 등에 따르면 A군수가 지난해 해외출장 일정에 동행한 여비서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는 가족들의 주장이 제기돼 사정당국이 진위파악에 나섰다. 현재 해당 여직원은 비서실을 최근 그만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자체 한 공무원은 "A군수의 성추행과 관련된 주장이 제기돼 진위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뉴스1

전주시 '동부대로 자전거전용도로' 만든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시범사업' 선정... 국비 4.2억 확보 내년 6월까지 설치

전주시 호성네거리에서 이중역을 잇는 동부대로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조성된다. 전주시는 최근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안전도 개선 시범사업'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생활형 자전거 이용이 많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체계적인 정비로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행정부 공모에는 전국 37개의 지자체가 신청해 전주시를 포함한 10곳이 최종 선정됐으며, 시는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 중 가장 많은 4억2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시는 내년 6월까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4억2천만원과 시비 6억3000만원 등 총 10억5000만원을 들여 호성네거리와 이중역을 잇는 동부대로 구간 중 총 길이 3.4km의 분리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분리형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또, 표지판과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나갈 방침이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주시 외곽권 우회대로의 자전거 통행과 통근, 장보기 등 안전한 통행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아중역 한옥레일바이크와 연계해 전주역에서 한옥마을까지 자전거를 통한 접근성이 높아지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추석 연휴에도 119가 함께합니다"

전북소방본부, 인력 9명 보강해 비상근무체제 들어가

전북소방본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도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추석도 긴 연휴로 인해 응급의료 상담요청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기존 인원에서 9명을 충원하고 전화량이 많은 시간 대별로 인력을 배치해 효율적으로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4시간 당직 병원·약국 등의 정보안내를 비롯해 응급처치 상담·지도, 응급진료 안내서비스, 환자상태에 따른 적절한 병원 안내와 구급차 출동 지원을 제공한다. 여기에 7개 구급대, 496명으로 구성된 119구급대는 도내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 출동체제를 갖추고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이밖에도 고속도로 정체 및 산악사고 발생 시 응급환자 이송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119구급헬기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119로 신고한 뒤 상담요원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신고 시 정확한 위치 전송을 비롯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이 담겨 있는 '119신고' 스마트폰 앱을 미리 내려받는 것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뉴스1

고창군의회 현직 의원실 압수수색

특정업체 선정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 금품 수수' 의혹

경찰이 특정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북 고창군의회 한 현직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고창군의회 A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전화 등을 가져와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A의원은 고창군 등서 발주한 공사를 지역의 한 특정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의원이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기초의원 의위를 이용해 행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날 가져온 압수자료 등을 분석해 A의원의 혐의를 파악하고 조만간 A의원과 업체 관계자 등을 소환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의원이 몇 건의 공사에 연루돼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수사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뉴스1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 통합 워크숍' 무주서 열려

2016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 통합 워크숍이 지난 6일과 7일 무주군 무풍면 승지마을 일원에서 개최됐다. 2016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은 삼각농정 '사람 찾는 농촌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이번 워크숍에는 전라북도와의 시·군 담당공무원, 거점마을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첫날 농촌관광마을 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추진전략, 사례를 통한 농촌관광 활성화 전략에 대해 공유했으며, 둘째 날인 7일에는 농촌관광 상품 개발 방안을 논의하고 농촌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SNS를 통한 홍보 성공사례도 공유돼 의미를 더했다. 전북도는 농촌관광 활성화 기반이 집적화된 마을이나 가능성이 있는 마을을 농촌관광 거점마을로 지정하고 혁신적 농촌관광 시스템 구축을 위한 거점으로 육성하고 있다. 무주군 관계자는 "마을만들기 사업소를 신설해 지난해 8월부터 마을로 가는 축제를 개최하고 마을 활동가 육성과 맞춤형 귀농·귀촌정책을 추진하는 등 농촌에 활력을 심고 있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서 기자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김병주(1962. 8. 11.생 2016. 4. 3. 사망)의 재산상속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전주지방법원 오송이 판사의 심판으로 법원에 수리되어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 또는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인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일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건번호: 2016년단564 상속한정승인 판사 오송이

▶ 피상속인: 망 김병주(1962. 8. 11.생 2016. 4. 3. 사망)

최후주소: 전주시 완산구 오공로 71, 109동 1004호(중동, 전북혁신도시 B-11BL 호반베르디움)

▶ 공고인: 김민준

▶ 한정승인수리일: 2016. 6. 28

▶ 공고기간: 2016. 9. 2. ~ 2016. 11. 1.

▶ 연락처: (청구인 김민준의 주소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60번길 5-12, 101호(풍덕천동)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